

대한조선, 해남에 세계 최대 조선소

2015년 年매출 10조원 배후 인구 10만 신도시

세계 최고를 향한 대한조선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해남군 화원반도 제1도크를 준공, 지난해 유럽쪽에 수주한 8척의 선박 건조에 들어간다. 또 2012년 140여만평에 달하는 대형 조선소 건설사업을 마무리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대한조선의 힘=해남군 화원면 화원반도에 위치한 대한조선소 건설사업은 1·2차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2008년 말 마무리되는 1차 사업에서는 90여만평의 부지에 3개의 도크가 만들어진다. 현재 1도크 공정은 40%를 웃돌아 오는 7월께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2009년 시작돼 늦어도 2012년 마무리된다. 150만평의 배후 신도시 조성과 함께 50만평에 달하는 육해수면 부지에 부품·블럭공장을 짓고, 시추선 등 해양플랜트 제작시설 등을 갖춰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약하게 된다.

오는 6월부터 선박 8척 건조

대한조선은 우선 규모면에서 현대중공업 등 메이저 조선업체를 압도한다.

대한조선의 경우 도크관련 시설 90만평에다 부품·블럭공장 등 50만평을 합쳐 140만평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이 150만평을 넘지만, 중공업제품 생산 부지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조선소 부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대우조선해양은 130만평, 삼성중공업은 100만평에 불과하다.

대형 선박의 건조능력을 말해주는 도크 규모 또한 타사를 앞선다. 대한조선 제 2·3도크는 길이 540m×폭 132m로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현대중공업 제 3도크는 640m×92m, 대우조선해양 530m×131m, 삼성중공업 640m×97.5m다.

2·3도크 각각 540m×폭 132m

대한조선의 수주프로젝트도 다분히 공격적이다. 초기단계(2007~2012년)에서는 국내 대형조선소들과 차별화해 벌크캐리어·중대형 컨테이너·탱커선 위주의 수주에 주력, 2012년 4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인 현대중공업과 최단기간에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크, 크레인 등 기반시설 대형화에 진력하게 된다.

중기단계(2013~2018년)는 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 대형컨테이너·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돌입하는 시기다. 연간 64척을 건조, 2015년부터 10조원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성숙기(2019년 이후)에서는 호화유람선·고속여객선·구축함 등을 건조해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를 지향하게 된다.



객선·구축함 등을 건조해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를 지향하게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차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 말이면 직간접 인원과 가족까지 합쳐 5만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2차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께는 1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과 6년여 만에 나누시 크기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해보면 대한조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대우의 경우 협력사 포함 직·간접 고용인력 2만5천752명과 가족 수까지 합하면 9만여명에 달한다.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총액은 매달 900억원, 경남도와 거제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총액만 해도 연간 150억원을 웃돈다.

송민호 해남조선소 사장은 "배후도시 인권의 음식·숙박업소 수입, 간접물류 등 부수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서 "서남해안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으로서 대한조선은 전남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움직이는 성장엔진”

세계 조선시장과 대한조선=지난해 세계 조선 시장은 선박량 증가와 노후선박 교체시기가 맞물려 호황을 맞았다. 특히 대체에너지 수요증가로 인한 LNG선 발주량이 급증한데다 해양오염을 우려한 국제적인 선박규제 바람까지 불어 올여 이후 새로운 조선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세계 조선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건조량 점유율은 280만CGT로, 43.8%에 달했다. 수주량도 610만CGT로, 54.0%를 차지해 중국(22.1%)을 밀찌잡치 따돌렸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반도체·자동차 등에 이은 6위의 수출산업에 불과하나 지난해 2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흑자규모(167억달러)보다 44억달러나 많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與 원내2당 전략... 정계개편 급류

■與 집단탈당 이후 정국

열린우리당내 신당과 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을 결행, 여당발(發) 정계개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분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범여권의 대선후보 선출 문제는 오리무중에 빠져들게 됐다. 여당은 추가 탈당과 탈당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합종연횡으로 극심한 혼돈을 겪게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집단 탈당의 여파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중인 '원 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의 추진도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원내 2당으로 추락하고 새 교섭단체가 정책 좌표를 중도개혁 노선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정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구도 파장 범여 주도권 쟁탈 치열

부동산 등 민생법안 추진 차질 우려

참여정부는 앞으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한나라당 등 야당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구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17대 총선을 계기로 진보 진영에 넘어갔던 의회권력이 다시 보수 진영으로 'U턴'하면서 국회의 각종 법안 및 현안 처리에 있어 보수적 색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양당제였던 정당 구도는 우리당, 한나라당, 새 교섭단체 등 3당 이상의 다당제로 전환, 각종 법안 및 현안 처리를 놓고 정지권의 이합집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원내 1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될 전망이다. 임기 1년을 남긴 참여정부와 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에 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서도 정국운영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좁아지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4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부 전열 가다듬기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전후를 기점으로 탈당이 계속된다면 붕괴의 수순을 밟으며 사수파와 비례대표 등 40여명의 의원들이 남아 당을 지키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탈당 의원들이 구성하는 교섭단체는 당장 신당을 창당하기 보다는 '통합신당 추진체'로서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시민사회세력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계개편의 급물살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한편 중도개혁 노선의 정책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기존의 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정계개편에서의 주도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탈당파 의원들이 구성하는 원내교섭단체와 접촉을 강화하기 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며 열린우리당에 남아있는 재선그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여당의 근본적인 붕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내 통합파와 사수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與 집단탈당 23명 명단

이름	선수	출신	지역구
김한길	3선	문광부장관	서울 구로을
김봉균	재선	재경부장관	전북 군산
이광래	-	청와대 정무수석	전북 남원 순창
이종걸	-	민변 변호사	경기 안양민안
조배숙	-	판사	전북 익산을
조일현	-	교수	경원 출신·형성
최용규	-	변호사/구청장	인천 부평을
김낙순	초선	의원 보좌관	서울 양천을
노동래	-	MBC 기자	서울 마포갑
노현술	-	고대 교수/구청장	서울 강서을
박상돈	-	대천 서산시장	충남 천안을
변재일	-	정통부차관	충북 청원
서재관	-	해양경찰청장	충북 재천 단양
양형일	-	조선대 총장	광주 동
유운근	-	변호사	전남 광양·구례
우재환	-	연세대 교수	경기 용인갑
우재환	-	경찰청 경비과장	경기 평택갑
이근식	-	형지부장관	서울 송파를
장경수	-	지방행정연구수석	경기 안산상를
전병헌	-	국정홍보처 차장	서울 동작을
제승욱	-	해양연구원	경기 안산단원
주승용	-	여수시장	전남 여수을
최규식	-	한국일보기자	서울 강북을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광뉴스

“중도개혁 통합신당 만들어 정권 창출”

우리당 탈당 주도 양형일 의원

“중도개혁을 모토로 한 통합신당을 만들어 정권 창출은 물론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의 대표 주자였던 양형일 의원(광주 동)은 6일 탈당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시대정신은 한국의 10년, 20년 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이라며 “우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중도 개혁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은 민심의 외면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탈당을 결심했다는 양 의원은 “오는 12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오는 2월말까지 적게는 15명 많게는 30명 이상의 의원이 새로운 원내교섭단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일단 새로 구성되는 원내교섭단체는 열린우리당 중도개혁 세력 의원들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기존 정당들과 시민사회세력, 전문가 그룹들과의 접촉을 통해 통합신당 창당의 밑거름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제 지분 등을 따지기보다는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신당 창당에 적극 나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제일에서 무인재발 개념으로 세기 보청기

세계스타·세기보청기

100% 고객만족